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지역 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순진

추석 거듭나기

예수님 안에서 ‘오직 감사와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로

예배와 신앙의 순결 소홀히 말아야 · 봉사위원회 추석 구제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의 의미를 알지 못한 것만 같아 모든 한국인에게 있어서 추석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지는 절기이다. 모처럼 만나는 가족들과의 모임이 좋고, 바쁜 일정을 놓고 쉬는 연휴의 휴식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기대감과 즐거움을 가능하게 한 추석명절의 뿌리는 고구려의 신조로 알려진 추풍이나 하백니, 이후에는 알 수 없는 하늘의 막연한 신을 향한 사마니즘적인 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조상신에게 표하는 예절, 혹은 조상숭배와 연결되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감사의 대상을 바르게, 분명하게 해야 하는 과제가 계속 남아 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처럼 추석이라는 절기도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보낼 수 있는 자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특히 금단의 추석에는 마음껏 웃을 수 없는 가정들이 많다. 실직과 미취업과 파산으로 인해 기대감과 기쁨 대신 좌절과 근심으로 가득한 가정들이 셀 수 없이 많다. 더구나 장애인 가정들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막을 것이 없어서 가사 직전의 상황까지도 연려해야 하는 집들이 대다수라는 소식이 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약하여 돌지 않았던 안되는 자들은 사실 바로 우리 교회 안에도 적지 않다. 따라서 금번 추석이 가족들을 향해 감사의 대상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을 증거하는 감사 회복의 절기로, 또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이키는 사랑 회복의 절기로 회복되도록 한 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봉사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 및 고등부, 구역식구들 중 어려움 가장 254세대를 대상으로 추석 특별 구제를 하기로 했다. 구제는 교역자들이 심방하여 기도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성도들은 3일부터 계속되는 소위 ‘황금연휴’라는 이유로 주일을 범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마음을 돌이켜 예배와 신앙의 순결을 더욱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감사와 사랑의 회복을 위한 추석 가족예배 모범

찬 송	30장 ‘여호와 하나님’	다같이
성경봉독	시편 97:1-12	다같이
메시지낭독	‘그 거룩한 축복에 감사할지이다’	인도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생활을 승려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이 나라에 허락하신 자유와 풍년의 축복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허락하신 죄로부터의 자유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는 사랑의 순서를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책임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돈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 주머니만큼 풀어 구제하며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김창인 원로목사의 ‘절기설교집’ 중)

기도	인도자
주기도	다같이
나눔	다같이

올 한해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
더 사랑하지 못한 일들 나누고 격려하기

추석맞이 외국인 근로자 초청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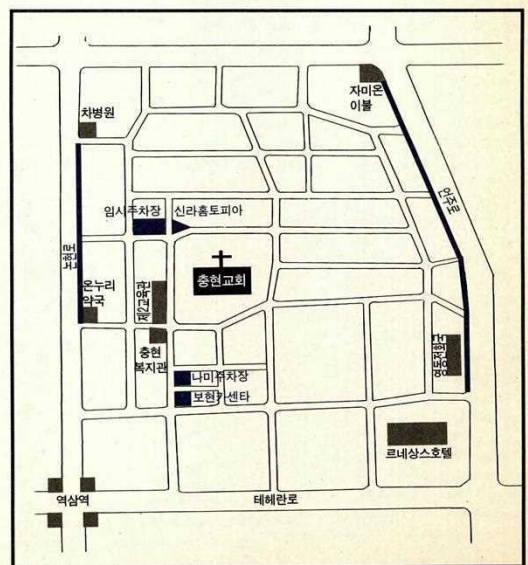
추석 연휴를 맞아 17교구에서는 10월 3일 하루 동안 전도, 봉사, 선교위원회의 협력으로 고향에 갈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의지할 곳없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선교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 장소는 교회 베다니홀과 왕남초등학교이다(관련기사 4면).

10월 주요 행사

- 7일 정기당회
- 12-14일 군전도회: 실업인전도회 가을합동수련회
- 15일 경찰전도회 전부경찰대전도집회
- 25일 종교개혁주일
- 교구 영성훈련
- 13일 6교구 15일 7교구
- 16일 9교구 20일 8교구
- 22일 5교구 23일 17교구
- 27일 10교구 29일 11교구
- 10월 기도원 담당: 정현민 목사

주일 주자장 이용을 안내합니다

- 임시주자장이용
 - 1) 교회정문쪽
 - 나미주자장
 - 보현캐센터
 - 2) 교회후문쪽
 - 신라호텔과와 바로 아래 주자장
- 대로변 주자이용공간(주일에만)
 - 연주로(자미온이불 앞에서부터 영동전교회 앞까지)
 - 논현로(차병원 위부터 은누리 약국 앞까지)
- 가능한 한 연주로, 논현로에 주차하신 후, 도보로 걸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필요시는 골목주차장도 가능하나, 단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소한 예배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함으로 여유로운 주차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주차공간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부 김영철 장로



김창인 목사

지혜로운 농부처럼 유대를 키워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28:23-29)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한 것에 대하여 ‘크다 작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장에서 성공한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 나님은 지혜로운 농부처럼 유대를 키워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농사를 지으십니까?

1. 개간을 하십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밭이 없지 않고 갈기만 하였느냐 그 땅을 개간하여 고르거만 하였느냐”(24절)

개간이란 씨를 심기 전에 땅을 평평히 고르고 잡목과 잡풀을 정리하고 땅을 만들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시기 위하여 큰 돌들을 다 깨어 버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가나안땅에서 세력을 잡고 있는 것을 오래 두지 않으시고 가라지를 뽑아 버리듯 그들을 다 정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옮겨 심어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2. 씨를 심으십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니 소외함을 뿌리며 대외함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았느냐”(25절)

농부는 땅을 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이 준비되면 씨를 뿌립니다.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 논에는 벼를 심고 밭에는 채소와 잡곡을 심고 풀이 잘 빠지는 곳에는 파수원을 만듭니다. 이렇게 아무 대나 아무 씨앗을 심지 않고 꼭 심을 때를 골라서 씨앗을 심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심는 때에 적당한 곳에 그 사람을 있게 하여 자라나도록 하십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릅니다. 기술과 지식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각의 사람을 적당한 곳에 그 사람들을 배치해 놓으십니다.

요셉은 부자인 야곱의 열한번째 아들로서 아버지가 입혀 주는 채색옷만 입고 살았지만 천את을 것 같았으나 그렇게 되었더라면 성공이 없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이라는 나무를 뽑아 애굽 왕후에게 던져 버렸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만민

을 살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사람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구약의 의인들 중에 손꼽히는 사람으로 크게 성공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구리굴에 결박을 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였지만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어디서든지 성공시키는 분이십니다.

3. 심은 씨앗을 잘 키우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와 이슬을 내리시고, 때를 따라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고 또 해충을 잡아 주면서 유대를 잘 키우십니다.

하나님은 심어 놓은 씨앗에 대하여 똑같은 비료를 주지 않으십니다. 심은 종자에 따라서 주는 거름이 다르듯이 이 사람에게서는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서는 지면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키우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과 같이 돈이 많으면 좋겠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지식이 많으면 좋겠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소망만 잘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4.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격을 하십니다

“소외함은 도리께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함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함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함은 막대기로 떨기 목숨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27, 28절)

농부가 타격을 하는 데 곡식에 따라서 타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리께로 떨리도록 하고 작대기로 떨리도록 하고 막대기로 떨리도록 하고 틀에 옮기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알곡 신자를 기루실 때에도 타격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아합 왕의 핍박과 이세벨 왕후의 잔악한 방법으로 고생을 시키시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역속함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농부가 타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도리께로 때리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고 공양을 께질에서 벗겨내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생을 주시고 영육에 손해가 되도록 하는 법은 없습니다. 꼭 유익하도록 때리십니다. 그렇게 하여 께질을 벗겨 알곡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상처를 입지 않게 타격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전혀 열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타격 과정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농부와 같아서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바로 믿고 순종만 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은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 못하여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심리로 우리를 키워 주시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리는 변함없이 같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사뭇가야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을 중심에 받아들여 기억하고 순종하여 지킴은 세상의 이기적하고 그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박혀 있어서 만사가 다 영통하는 성공의 복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축경기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축경기는 겉으로 보기에 알곡과 별 차이가 없으나 속에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보면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결별기는 끝으로 다 갖추었으나 그

그러나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자는 환난의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징계의 도리께로 타격을 하면 알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께질만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관한 때에는 부처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있는 자는 심련의 바람이 불어 오는 날이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

의 종들이 권면하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순종하면서 세월을 허송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남들은 거름을 준비하였는데 왜 자기는 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께질만 들고 다니야 합니까? 남들은 같은 시간에 알맹이를 채웠는데 자기는 어찌하여 알맹이가 없습니까? 성공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았고 기도하길 될 때에 기도하지 않았고 성경을 읽어야 할 때에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지혜로운 농부와 같으므로 철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들은 모두 처리해 버리시고 당신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에 심으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왜 여기에 심으셨나?”라는 불평은 꿈에도 하지 맙시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면서 시간을 헛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생명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열매가 열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로, 가장 훌륭한 열매는 되지 못해도 정당한 열매인 것으로서 성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두알이 아무리 잘 되어도 사파만하게 되지는 못합니다. 영두가 “나는 왜 사파만크지 못하지?”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두는 영두로서 잘 익으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한 것에 대하여 “크다 작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장에서 성공한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나의 성공이 작다고 하여 멸시당하고 말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곡으로 취급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써야 하겠습니다. ■



김성관 목사

그리스도인의 의무

(로마서 13:11-14)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경청하므로
우리가 속한 사회와 이 나라와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의 의의 선물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총 우리의 응답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진정한 영적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깨우치고 경건과 의를 연습하는 우리의 특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온 새 언약, 곧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의’는 오직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연습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살펴보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순종의 규칙이나 행동의 기준들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내용의 핵심이 아님을 확실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만큼 중요함입니다. 사실, 규칙이나 기준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를 영접하기 전과 후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만큼은 영접 전과 후에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거룩한’ 일과 ‘올바른’ 일은 실상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 동기가 그것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동기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로운 일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원천적인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이로써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무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경외와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진리 곧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올바른 동기로부터 비롯되는 경배와 순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받기 위해 의로워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의로워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

이제 사도 바울의 간곡한 권고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깬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옴이니라”(11절). 우리를 영광된 구원으로 인도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진리가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다. 지금도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깨어나십시오! 바가 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일하고 나태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때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중국의 양자강이 범람하여 14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생겨났습니다. 남미에서는 7.1도의 강진이 일어나 많은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해에 찌든 공기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사극본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야아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영의 빛을 떠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평범한 어두운 세상은 곧 끝이 날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눈물을 흘리던 자들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여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오니 그리스도 우리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12절). 이제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부정적인 눈을 벗고 의의 눈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어두운 부분만을 덮으려만 하려합니다. 그들은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무관하게 느낍니다. 또한 주일에 물건을 사고 팔지 않는 것을 의식적케 합니다. 그들은 선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악하고 어두운 면만을 생각합니다. 순종과 성실은 경외와 겸손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결코 절망과 태만한 마음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더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원히 어두운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은 영적인 삶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의의 빛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의의 능력 앞에서 실패한 일을 수 없습니다. 실패는 죄의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낮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후회할 것 같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외로운 자였던 모든 일들이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와 인간의 과학이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학은 흥레가 갈라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의문은 사라질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인간의 과학은 더욱 발전하고 신성시되지만 밤은 깊었고 진정한 빛이 있는 날이 가까워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금해야 할 어둠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행투와 시기질투를 버리라”(13절). 과연 술에서 온락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의와 같은 것들을 금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감감한 방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환하게 불을 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또 마땅히 그러합니다. 그리스도도 빛을 밝혀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생의 성도 여러분, 때가 가까워 온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단절되지 아니한다면 죽습니다! 시 오실 날에 어떻게 부름받은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주는 우리 자신과 또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러하여 어두움이 아닌 빛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와 불만, 개인적인 경험과 지혜 또는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서는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기쁨, 평강과 인내, 온유와 양선, 믿음과 자비, 절제,

곧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만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14절). 육신의 일은 영의 일을 대적하고 영의 일은 육신의 일을 반대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거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갈 3:25).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다는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영을 깨우강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의무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살아 계십니다. 모든 죄와 세상과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으므로 하늘나라의 보좌에 좌회해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개개인을 찾아 가셔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르도록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당선을 마치고 부도덕함 이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십니다. 이제 그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어두운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던 마음을 돌이킵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자비롭고 아름다운 음성만을 경청합시다.

변화된 모습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새해 요한은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생이고 의의 자녀를 감사합시다. 더욱 담대히 시로를 권고하여 주 안에서 깨끗한 교회로 거역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경청하므로 우리가 속한 사회와 이 나라와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분의 의의 선물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갑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습니다. 우리가 경외 해야 할 분은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는 자들을 깨워야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세상에 거역하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

선교부시명3

총현중등부
그루터기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자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는 중등부 선교 모임이다.

주일 12시 교육관 401호.

뜻밖돌발한 눈초리로 모여 앉아서 성경공부를 하는 모습은 어느 교회학교 아이들과 같다. 그러나 그들의 비전과 기도에 귀 기울이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993년 학생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돕자는 취지로 그루터기가 결성되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 선교사에게 편지쓰기, 선교특강을 통해 장난기 어린 그들의 눈에는 수단, 스리랑카, 케냐, 몽골 등이 비전의 땅으로 변해 갔다.



‘무엇이 되겠다’는 그들의 꿈은 ‘무엇이 되어 이 땅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가겠다’로 변했다. 의사가 되어 전문인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 외교관으로 선교지를 밟겠다는 아무진 포부, 이런 꿈과 비전들을 작은 씨앗 삼아 그루터기는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작은 선교사님들의 계획은 ‘땅끝까지(고등부 선교 모임)’, ‘새꿈이(세계를 꿈꾸는 젊은이의 약자)’와 함께 단기선교를 가겠다는 아무진 계획 또한 가지고 있다.

그들이 어렸을 때 배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뼈와 함께 성장한다면 우리 총현은 든든한 기둥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작은 그루터기가 장대한 나무가 될 날을 꿈꾸니 총현의 미래가 밝아 웃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선교현상 이야기

케냐 고은빈 평신도선교사

총현 식구들의 기도의 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도 부추한 줄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도와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부추한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은 총현 식구들의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막사이 지역에서 하가 지씩 배워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레레크리스천초등학교를 통한 기독교 교육 사역과 함께 교회 여전도 회원들의 문맹 퇴치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으며,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추한 줄이 하나님의 일을 보다 열심히 하고있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이들에게 줄 콩죽을 만들고 있는 고은빈 선교사

지금 선교위원회에서는...

1. 언어과정 지급 훈련 중!

선교연구원(평신도선교사 훈련)이 지난 9월 5일(토)에 개설되어 60여명의 선교사 지방생들이 비전 과정과 언어과정으로 나누어 훈련을 받고 있다.

특히 언어훈련은 급변 단기선교를 통해 언어훈련의 절대적 필요가 강조된 바, 현지인과 교포2세를 강사로 스리랑카어(베나나홀, 오후 7시 30분-9시), 몽골어(베나나홀, 오후 3시 30분-4시 30분), 중국어(교육관 105호, 오후 7시 30분-9시), 영어(베나나홀, 오후 2시 30분-3시 30분)를 기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계된 일을 하고 있거나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언어 수업을 원하는 분은 선교위원회(선교관 4층)로 문의하거나 강의실로 방문하면 된다.



△ 언어과정은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된다.

2. <98 총현선교 소식2> 발송

지난 한 주간 동안 선교위원회에서는 선교사님들의 지속적인 사역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98 총현선교 소식2>를 발송했다. 국가적으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발송한 소식지에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내용과 어려움이 있었던 단기선교 사역보고가 담겨져 있다.

3. 국내외국인선교부

전도행사 가질 예정

10월 3일 17교구와 연합, 100여명 외국인 근로자 초청

선교위원회 국내외국인선교부는 17교구와 연합으로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전도 체육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10월 3일 오전 9시부터 교회 및 양남초등학교(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소재)에서 있을 예정인 이번 행사는 17교구에서 주최하고 국내외국인선교부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주로 17교구(경기도 광주, 분당, 성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초청될 이번 행사는 17교구 성도들의 전도사역을 증진시키고,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도함으로써 교회의 세계 선교 사역에 일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본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기존의 외국인 형제들을 포함 약 1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사는 교회 예배, 식사, 운동경기,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당일 대 행사 후 저녁 시간에는 교회 기도원에서 참가자 전원 이 영성훈련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선교위원회와 교구가 합동으로 전도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선교위원회와 다른 교구의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추석 때면 특별한 소일거리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술과 노래, TV시청 등으로 휴일을 보냈는데 이번 추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보낸다는 점에서 본 행사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



△ 지난 여름에 있었던 17교구 외국인근로자 초청 전도행사

에바다부 10주년을 맞아

에바다부를 아시나오



인 상 수

(안수집사, 에바다부 부장)

예수님께서 농아를 보시며 하늘을 우리러 탄식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열리라는 뜻)라고 하셨다(막 7:34).

88년 가을 사랑무와 함께 개설된 에바다부가 급변으로 어느덧 10년을 맞이한다. 처음 농아성도 7-8명으로 시작하였는데 이제 농아인 성도 150여명과 교사 80여명으로 학생반과 성인반의 2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농아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전도할 분을 예비하여 주시어서 만나는 농아들이 전도가 잘되게 하시고 부흥, 성장하게 해 주셨다. 에바다부의 성장에는 초창기 부장 박인재 장로님과 지도 일터부 전도사님의 숨은 사랑이 있다. 당시 박 장로님께서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고, 임 전도사님께서는 사비로 받으신 돈을 에바다부 성도 심방과 구제에 거의 다 쓰실 정도였다. 장로님과 전도사님이 사랑을 쏟아 주셨고 농아들에게 정성이 모자라게 되면서 교사들에게도 용광로와 같은 열정이 떠올랐다.

농아 한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들으면 전화를 얻은 기쁨으로 달려



△ 작년에 있었던 9주년 기념예배

농아인들에 대한 용광로와 같은 열정이 모여져 차고 넘치도록 부흥케 된 에바다부

가 전도하여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7-8명의 성도 중에 삼성농아원 초등학생 3명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었는데 주일 아침마다 농아원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삼성농아원에서 50명이나 출석하게 되었다. 애화농아학교, 선희농아학교에도 매주일 전도를 나가면서 에바다 예배실이 작아서 앉을 자리가 부족

할 정도가 되었다. 베다니홀을 에바다부 예배실로 주실 것을 청원하였으나 다른 부서에서 쓰는 데가 많아서 줄 수가 없으니 복지관을 지어서 좋은 데를 줄테니 기다리라하여 기다리면서 학생반과 성인반을 나누어 2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복지관이 완성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고 지금 교육관 109호

에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농아원에서 올면서 안아달라고 매달 리던 아이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여 적장인들이 되었으며 결혼을 하여 아이들을 업고 안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실을 뛰어 다녔었는데, 이제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차속에서 기도를 하는 아이들, 주일 찬양예배와 금요집회에서는 수화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님들의 마음마음에 은혜를 받게 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왁글 쏟아진다. 방황하며 교통신교와 절벽으로 거의 죽었던 자를 살려 주시고 에바다부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은혜받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할 뿐이다.

에바다부 1주년 기념예배에서 김창인 원로목사님께서 "나도 어릴 때부터 장에있었다. 우리 모두는 에바다제인이야" 하신 말씀이 기억에 새롭다. 충현의 에바다부를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고, 충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에 막혀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에바다)되는 역사가 일어날길 기도한다.

기적의 하나님

박 상 금(교구)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결혼 후 두 형제를 두어 각각 초등학교 3, 4학년이 된 시기였다. 92년 초가를 우리 가족은 강릉에서 살았다. 공무원인 남편을 따라 2년의 지방공무를 마치고 서울로 다시 올라와 있었다. 나는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므로 성수주일을 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둘째아들 병원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두고 보다가 일주일이 되도록 약기운만 떨어지면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기를 반복했다. 예상치 않았고 큰 병원에 가라는 얘기를 듣고 강남성모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때의 일들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일들이다. 각종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균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아이는 고열로 인해 고통스러웠다. 고열은 휴유증에 무뎌짐 때문에 혹시 나에 손상을 줄까봐 열이 오를 때마다 내 심장이 새까맣게 타는 듯 열로 긴장이 높았다. 열이 오르면 고열이라는 은 몸을 사시나누며 열도 발발 열었다. 옆에서 봐야 하는 우리 부부는 열이 근심으로 식음을 전폐하였다. 최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러하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의 고통을 조금씩 알고 싶었다. 나는 서서히 주님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아이를 놓고 함께 기도하였다. 믿음이 없던 남편이 전에 자기 주막만 믿으라더니 아이의 병 앞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동네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후에 은 평안함과 안도감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이이도 예배를 드린 후로 안심이 되는지 혈색이 돌고 이를 후에는 거짓말처럼 열이 떨어졌다. 급성유

나 같은 죄인을 어디 쓰실 곳이 있다고 이렇게 살리시나이까 나는 감사와 놀라움에 정말 소리질러 통곡을 하였다

그후 94년 겨울 충현교회에 등록하고 임마누엘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던 중 나는 바른 소리에 대한 열망이 커져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늦게나마 대학에 들어가려고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공부를 했다. 첫째는 떨어져 재수를 하게 되었다. 성악 지망생이 재수를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수능공부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내 실력을 다 발휘할 수는 없었다. 영적 상태도 책만 보고 있으니 거의 바닥으로 내려앉아 실상 가장으로 물질적 어려움까지 겹치니 나는 심히 지쳐 있었다. 그래서 김창인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다. "대하문을 열어 주신 일꾼되게 하소서" 꿇고도 깊은 목사님의 기도는 두고두고 내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당시 부족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분들의 기도

로 40세에 기적처럼 대학에 들어갔다. 이 모든 은혜에도 감사 한 번 제대로 주님께 드리지 못하였다. 그저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영적 각오만 했을 뿐.

나의 부족한 감사와 교만으로 나는 또 한 번의 시련을 맞았다. 명지전문대학과 1학년을 다니던 4월 21일 저녁 교통사고로 당하였다. 용산 삼각지 로타리 부근을 지나다 뒷차에 의해 크게 부딪쳐 제차 관경이 나갔다. 교통사고! 처음 사고 직후에는 막에 나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다. 한참 후에 기어서 나와보니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이것이 실제 상황이구나! 사고 2분전만 안전벨트 맨 것이 생각났다. 위험한 순간을 아시고 안전벨트를 매게 하신 주님! 다쳤으되 하나님도 다치지 않게 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어디 쓰실 곳이 있다고 이렇게 살리시나이까 나는 감사와 놀라움에 정말 소리질러 통곡을 하였다. 병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밤이 새도록 잠을 잘 수 없었다. 회복도 빨랐고 영적 침체 상태도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때에 맞추어 에베레마다 내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그저 목에 메이도록 감사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게 주를 사랑하나다." (시 18:1) 나도 이제 이런 고백을 감히 하고 싶다. 담임 목사님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 온다. "너 무엇을 하느냐? 너를 위하여 고를 리라 하신대만 너 무엇을 하느냐? 이제 나는 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난다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잘 닦고 또 그리스도의 인격을 잘 닦아서 어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지체들 소식

영아부

반갑고 새로운 귀한 시간 - 심방

9월을 심방의 달로 정해 아기들과 그 가정을 돌아본 영아부에서는 지금 그 마무리가 한창이다. 바쁜 중에도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아기들 각 가정에 심방을 하였다. 심방을 거결하는 엄마들과 집에서 신앙심을 나누는 반갑고 새로운 마음에 축하하고 주일에 못다한 이야기 나누는 수 있었기에 만족했었다. 이처럼 영아부는 예수님의 힘으로 이번 9월을 마감하고 있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주를 찬양하라

유아부는 9월 20일 찬송부르기대회를 가졌습니다. 할아버지, 딸들 두루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또는 머리에 만류관을 쓰고 나와 여러 주일 연습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어찌던 그 예쁜지요. 3, 4살 동생반의 서투른 찬송도, 5살 형이반의 능숙한 모습도 한결같이 은혜스러웠습니다. 어린이들이 유행가만 부른다고 걱정할 하지요. 우리 유아부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항상 기도하여 찬송하여 깨끗하게 간직하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합창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임미수 통신원)

유지부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작은 입술로 부르는 찬양대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힘찬 주일입니다. 전도사님의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듣는 유지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가을을 맞은 영교 포도송이 같은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릴 기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들로 자라나길 늘 기도해 주세요. (조인혜 통신원)

유년부

봉사가 빛나는 할아버지

교회학교 행사 때가 되면 분주한 또 하나의 팀을 소개해 드리지요. '봉사'라는 이름이 더욱 빛나는 봉사자입니다.



다. 어린이의 신앙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새 친구를 위한 초창전도잔치 때, 장기결석의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한 총동원 전도주일 때, 그리고 매월 교사가 도회를 돌낸 후 모이는 친교의 때마다 바빠지는 손길들이예요. 이 팀에서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를 위해 맘 풀려 나누는 주시는 음식들은 실로 성경의 하단한 무리를 먹인 신 사명의 양식과 같습니다. 두 분 안양자 부랑 컨사님과 윤경자 봉사과장님은 이름 붙이 '자'자로 같은 뿐만 아니라, 합력하시는 봉사의 마음대로 서로 일치하신대요. 유년부대 처음 오신 안 컨사님은 어린이들의 재물이 예쁘고 귀엽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봉사과장님 3년하신 윤 컨사님은 남다른 봉사를 통해, 개신과 가정의 축복을 많이 받으심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맡당한 봉사를 하시며, 말없이 수고의 자리를 지키시는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오직 한 마디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현주 통신원)

초등부

어린이 초청잔치

저희 초등부에서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9월 27일(주일)에 어린이 초청전도잔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그 동안 기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종일합창, 웅성웅성, 어린이들이 걸어나오는 토요일 오후 여섯, 하동, 논현 초등학교 앞까지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만

나고 전하며 데려오기 위하여 예수신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만나고 전해던 많은 생명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것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숙 통신원)

중등2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저희들을 더욱 붙들여 주시어 '저리 딛' 주신 사랑 '저리딛딛' ..." 대표 기도가 끝나자 무렵부터 마이크에서 심상치 않은 잡음이 들리더니 분주하게 고쳐보시는 전사님의 성의도 무시하고 마아이크는 계속 잡음이 흘러나오고 드디어 설교시간이 되고 말았다. 마이크는 꺼지고 말씀은 축성으로 선포되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의 염려와 우려는 순간 사라지고 주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혼드시는 '말씀의 집'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당당하게 생명의 힘으로 외친다 바울 사도도 마아이크의 도움이 없었겠지, 어느 교회, 어느 기관보다 마아이크 성성이 좋은 우리 교회지만, 지난 주 우리 중등2부의 마아이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까지 주어야 했다. 주께서 친히 주신 말씀의 집을 붙잡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나성애 통신원)

15교구

교구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주립도 아니요 마실 것이 없어 갈갈도 아니건만 타러 놓은 밥상을 놓고 반찬부정하는 편식으로 허약해진 아이를 어찌 하든지 한 끼의 식사라도 거르지 않게 하려는 이미 된 심정을 아는지요? 어느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요, 믿음이 필요한 때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건만 이제 우리는 것만 잡으려는 인간의 부패함과 허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세상상에서 지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교구모임

에서 넘치고 있습니다. 영혼이 살찌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때마다 정성드려 차려 놓은 음식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동안 15교구에 속해 있으면서도 참석치 않았던 식구들 한번 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교구 모임은 매주일 오후 2시 배다 니홀에서 있습니다. (한국측 통신원)

충원복지관

지리산(1915m) 정복



지난 17일~19일 훈련생 80명, 직원 39명 등 총 119명의 복지관 식구들이 극지훈련의 일환으로 지리산 등반을 했다. 이번 지리산 등반은 매년 실시되는 '하나님'의 '포도'그림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올해로 3회를 맞이했다. 일한인들도 오르기 쉽지 않은 지리산을 훈련생들이 교사들보다 더 빠르고 남달린 용기정신으로 등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숨겨진 잠재능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평소 복지관에서 관상산, 북한산 등 등산훈련을 열심히 했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박 3일의 짧고도 긴 지리산 등반 여정 속에서 훈련생들과 직원들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고, 이번 산행에서 얻은 자신감이 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통합되어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전량봉을 정복한 훈련생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또한 모든 일정을 무사히 지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탐방 - 뱀열찬당대

젊은 패기만큼 우량한 찬양

매주일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 - 5부 예배의 한편 찬양대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힘찬 찬양대로 예배를 즐기는 뱀열 찬양대(대장 민동식 장모, 지휘 강인구 집사, 반주 민희정 장모)는 대학부와 청년1부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찬양대이다. 올해 4월 10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된 뱀열찬양대는 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단합된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 찬양대 약 80명, 그리고 오케스트라 25명으로 구성된 뱀열찬양대는 대학부와 청년1부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토요일은 2시간 동안 찬양 연습을 하는데 오후 6시부터 7시까지의 호산나회에서, 7시부터 8시까지의 나사렛에서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며 연습을 한다. 그리고 주일에는 오후 1시 15분부터 예배드리기 전까지 나사렛홀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 연습을 한다.

대원들은 찬양대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각각 속해 있는 부서의 활동에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 아침부터 분주하다. 뱀열찬양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부 회원들은 아침 9시부터 GBS를 하고 11시부터 대학부 집회에 참석하고 예배 전 찬양 연습을 한다. 그리고 5부예배를 드린 후에도 각각 속해 있는 모임들에 참여한다. 그래서 5부예

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단합된 모습으로 힘찬 찬양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

배가 끝난 후에는 연습이 없다. 대신 토요일의 연습 시간에는 90-100%의 출석률을 기록하며 최선을 다해 연습한다. 지난 8월 마지막 주일교 공동부와 뱀열찬양대자 연합으로 주일교 집사의 지

휘로 찬양을 드렸다. 10월엔 교범적 신생(고등부 찬양대 지휘자)의 지휘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할 것이라 한다. 앞으로도 계속 마지 못 주일엔 찬양 대로 설 것이라고. 지금은 뱀열찬양대가



봉사를 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연습시간이 부족하고 대학부와 청년1부, 이 두 부서의 시간을 서로 맞춰야 하는 어려움과 아직은 행정적 미숙함들이 있지만 뱀열찬양대원들의 무언언지 저러는 적극적인 마음과 순종할 줄도 아는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여 발전하는 뱀열찬양대가 될 것이다.

음악적 발전뿐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가꾸며 찬양을 통하여 인생을 정결화하여 하나님께 쓰시는 젊은이들이 되도록 성도들의 지도 후원을 바란다. (글/박주영 기자)

교 회 소 식

● 알 림

1. 구제헌금 / 오늘 I, II, III, IV, V 부예배 시 드립니다.
2. 장년3부 특강 / 오늘 12:30-13:30 교육관 307에서 있습니다. · 주제: 믿음과 감사 · 강사: 이종대 목사
3. 성경연구원 강의 접수 안내 / 오늘까지 강의 접수를 마감하오니 신청 많이하시기 바랍니다.
4. 주간충헌 다음주 광고 및 지체물(통신물) 소식 마감 안내 / 30일(수) 오전까지 광고 접수를 마감하오니 착오없이시기 바랍니다.

● 모 임

1. 장로 회교사목기도회 / 29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월요새벽기도회 및 성경공부 / 28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주일오후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갈릴리움
4. 십일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10월 1일(목) 새벽기도 후, 십일인전도회실
5. 2교구 협의회 / 29일(화) 18:30, 캄빈홀
6. 권사회 제4차 월례회 / 30일(수) 1부예배 후, 사랑부실

● 남녀전도회

1. 바 울 3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314호
2. 바 울12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212호
3. 베드로 3 / 오늘 교구모임 후, 교육관 314호
4. 요 한14 / 오늘 19:00, 이강국 형제대(619-5076)
5. 루디아 3 / 10월 2일(금) 연합 구역예배 후, 베다니홀
6. 마리아 3 / 10월 2일(금) 11:00, 교육관 109호
7. 마리아11 / 오늘 12:10, 유아부실

● 결 혼

1. 오 현군(이정호 성도의 아들)과 김정심(김두현 집사, 안희복 권사의 딸, 제15교구) / 29일(화) 15:00 동부이촌동 은누리교회

● 주 소 및 전 화번호 변경

1. 박승준 경로, 조금자 권사 / 교양시 일산구 마두1동 732 백마마을 한양A, 308-712, 전화: 0344-904-7769
2. 김창기 집사, 김경숙 집사 / 강남구 역삼동 664-23, 전화: 3453-0627

● 10월 주일 및 수요일예 기도 담당

월	일	주일 예배 (점교)					찬양 예배 (일주일)	수요 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10	4	김재명	안종욱	차진석	김천세	김인관	조규호	연하숙	왕진숙
	11	손경수	김단용	이종국	윤성철	이인상	홍시우	오덕희	유은성
	18	김연수	임기채	이희영	임무원	황영일	박정태	유호순	유병순
	25	최명환	김광남	박진원	이홍식	전홍용	이성영	윤필배	이정원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인도자
1529	이철웅	1	바울		1538	김형석	11	청년2부		1547	박혜연	19	대학부	
1530	허지현	1	청년2부		1539	장종구	19	고등부		1548	고광민	6	바울	고법석(6)
1531	이진주	4	청년2부	백덕일(16)	1540	이선우	19	고등부		1549	조규성	15	소망부	
1532	김광철	4	청년2부	백덕일(16)	1541	이재원	19	대학부	노혜영(6)	1550	박윤길	3	청년2부	
1533	김동희	4	대학부	백덕일(16)	1542	이현진	19	대학부	최지나(19)	1550	이진길	4	루디아	
1534	김창근	7	청년2부	이경자(7)	1543	배현직	19	대학부		1551	김석순	7	소망부	
1535	전옥순	8	바울	박윤석(8)	1544	임근호	19	대학부		1551	김홍호	7	소망부	
1536	이양림	8	한나	전윤혜(8)	1545	백승리	19	대학부	백명자(11)					
1537	소정옥	10	루디아		1546	이주영	19	대학부						

※충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물매들

힘이 되시는 주님

김 정 순(집사, 13교구 · 고등부 교사)

교회에서 수요일예배를 드리고 찬양 연습 후 좀 늦은 시각에 집에 도착했다. 고3 아들이 학교 공부 마치고 지친 심정을 달래고자 집 에 와 잠깐 쉬고 독서실 갈 준비를 하 면서, “엄마,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 어요. 아마 독서실인가 봐요. 조금 후 에 다시 전화 올 거예요”라고 했다. 자정이 조금 지나서 정말 미영이한테 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저 ○○ 대 학에 원서 썼어요. 지금 자신감 잃지 않게 기도 좀 해 주세요” 순간 나의 눈에는 눈물이 팽 돌았다. 바울이 믿 음의 아들 디모데를 낳아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스런 믿음의 딸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힘을 얻고자 늦은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길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님 께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며칠 전에도 우리 반 학생이 학교에서 잠깐 짬을 내서 초조한 마음 달랠 길 없이 위로받고 자 전화를 했었다.

지금 우리의 고3 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오! 주님, 입시를 앞두고 있 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자신감 잃지 않게 힘을 주소서. 주께서 성령 의 은혜로 두 손을 붙들어 주시고 건 강을 잃지 않게 새 힘을 주소서. 오늘 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께 포대를 장해 놓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평강 의 복을 내려 주소서. 아멘.”

충헌 중보의 창

① 장강민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서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② 충헌소식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공부에 힘쓰며 전국 일꾼으로 잘 자라나게 하소서.

③ 각 예배순서를 맡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④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케 하시고, 충헌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⑤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지게 하소서.

⑥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워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충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용이 아닌 성도들을 믿음중에 강건케 하시기 치료하여 주소서.

⑦ 매주 수요일예배 후에 있는 지역장, 부지역장 훈련회와 수요일예배 후 진행되는 남 성도구역장훈련을 통해 교구일꾼들이 힘있게 세워지기 각구역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 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소서.

⑧ 교회 5대 목표가 각 교구와 교회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전 교회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 하소서.

⑨ 계속되는 교구영성훈련을 통하여 각 교구가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나됨을 이루게 하시며, 주안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 성부, 선교연구원 등의 강회가 힘있게 진행 되어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준비시킬 수 있 록 동행하소서.

⑩ 추석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예배와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⑪ 10월 3일(토)에 열리는 17교구 외국인초 청찬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교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하소서.

10월 4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예배

변영여성중창단

- 〈찬양곡목〉
- 주 경언식 김나 절었네
- 묘한 세상 주시고
- 생을 같은 보혈은
-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 3부예배

소프라노 박나현(합월루아전담대 솔로리스트)

- 〈찬양곡목〉
- 찬양 놀이 계신 주께
- 오나의 구주여
- 주님

◆ 4부예배

변영여성중창단

- 〈찬양곡목〉
- 주 경언식 김나 절었네
- 묘한 세상 주시고
- 생을 같은 보혈은
-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 5부예배

찬양 및 기도회

인도 김동호 목사



■ 원로목사

장강민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식 김희수 이종대 박정환 김동석

김필수 전병환 김재철 이종수 정갑진

정현민 조복환 조인숙 김동하 차병환

김병태 김진익 권상진 사병진 이종학

■ 협동목사

윤영택 박형용 노봉원

■ 전도사

이은교 안석열 김영태

■ 감동사

이준경 박노철

■ 원로전도사

이우란

■ 여전도사

최은숙 정영인 현진남 정복인 장영자

안희숙 김지혜 최지혜 손미희

송유랑 신동자 윤은진 오정숙 오인숙

김옥순 한영준 박용화 박희자 김영숙

김복순 최영란

■ 교정전도사

박정환

■ 교원전도사

박정환

■ 사역기

정현일 한승일 이종관 김영기

송원식 김장중 조재민 최진우 하용근

이우란

■ 선교전도사

정은희 박태양

■ 원로전도사

유정환 김형진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최요섭